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평화와 번영을 위한 100년의 여망,
우리가 이어갑니다

1919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945 8·15 광복

1960 4·19 혁명

1980 5·18 민주화운동

1987 6·10 민주항쟁

1998 IMF 외환위기 극복

2016 촛불 시민 혁명

2018 남북정상회담(판문점, 평양)

2019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농두밭

2019 | 봄 | 35호

녹두칼럼

신영우 /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기획① 명사대담

김성주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기념재단 포커스

주요 사업 소개

참여자 유족 인터뷰

문형식 / 참여자 문장준의 증손자

기획② 지역대담

박남식 / 우금티기념사업사업회

뉴스초점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진달래

조재훈

사흘 넘겨 연기 나지 않던
어린 날 굴뚝에,
와서 울던
굴뚝새

미역국에
하얀 이밥 한 그릇 먹기
평생소원이던
울 엄니
무덤에
팔팔 날리는
창백한 눈발을 아는가

끓어 누으려 곱마다
활활 산이 타오르고
염병이 돌아, 염병이 돌아
지잉 징징
밤새 징이 울고

머리맡에
찬물 한 사발
고 밤을 깎는
고얀 놈, 고얀 놈
할아버지 마른기침 소리 들린다.

갑오년이던가
쇠스랑 메고 조선낫 들고
황토 벼랑 기어오르던
남정네 팔팔 솟던
피, 지금도 우렁우렁 살아 우는 피로
삼천리 산하에 피었다.

조재훈 趙載勳

시인, 공주사대 국어교육과 졸업. 1974년 『한국문학』 신인상에 당선되면서 작품활동 시작. 시집으로 『겨울의 꿈』(1984)이 있다.

02 시로 읽는 동학농민혁명
조재훈 / 진달래

04 녹두칼럼
신영우 /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06 뉴스초점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SBS 특별기획 드라마 「녹두꽃」 방영(예정)
KBS 특별기획 3부작 「시민의 탄생」 방영(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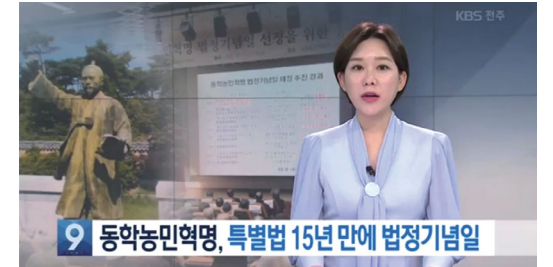
08 기획① 명사대담
김성주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16 기념재단 포커스
이사회 개최
운영위원회 개최
기념관 운영위원회 개최

18 참여자 유족 인터뷰
문형식 / 참여자 문장준의 증손자

25 유적지 탐방
충남 공주지역 유적지를 찾아서

32 기획② 지역 대담
박남식 외 / 우금티기념사업회 이사장 외



41 지역단체포커스
제25회 원평 구미란전투 희생자 124주기 추모제
전봉준장군 탄생 제163주년 기념행사
동학농민혁명 제125주년 고부농민봉기 재현행사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 정읍동학마라톤대회 개최

43 파랑새 소식
기념관 방문단체

45 보도기사 색인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제자(題字) : 효봉 여태명

표지 설명

동학농민혁명 우금티전투 중 가장 격전지로 알려진 견준봉(234m)과 두리봉(192m) 일대이다. 정면 중앙의 산봉우리가 견준봉(234m)이고, 앞쪽 좌측 산봉우리가 두리봉(192m)인데, 우금티전투 당시 동학농민군 최전방 지휘부가 이곳 두리봉에 있었다고 한다.

발행일 2019년 4월 1일 | 발행인 이승우 | 발행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소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 전화 063.538.2896 | 팩스 063.538.2893
이메일 1894@1894.or.kr | 제작 홍디자인

동학농민혁명 125주년과 역사학도의 소감

신영우 충북대 명예교수

일본군의 1890년 대연습

일본제국의 육군과 해군은 1890년 3월 28일 아이치현에서 대규모 연습(演習)을 실시했다. 연습은 군대에서 “전투능력 평가를 위해 실전과 비슷한 상황에서 실시하는 군사 행동”을 말한다. 청일전쟁 4년 전에 벌인 전쟁연습이었다.

이미 1년 전에 ‘육해군 연합 대연습 조례’를 제정했다. 천황이 친림한 자리에서, 작전계획에 기초하여 공격과 방어를 전개하며, 대연습에서 나온 군령 등은 전시계획에 사용하고, 육군은 1개사단 이상, 해군은 1개 진수부 이상 기동연습에 동원하는 것이 요지였다. 4월 2일까지 5일 간 계속된 대연습의 작전계획은 도쿄를 포함한 중부 해안 일대를 포함하는데, 조선지도를 보면 서울에서 목포에 걸치는 넓은 구간이 작전지역이었다.

침략군으로 상정한 공격군은 강대한 함대를 보유한 2개국 연합군으로 제해권을 장악했다. 도쿄만으로 들어오는 이즈오섬(伊豆大島)과 이즈반도, 그리고 세토내해의 아와지섬과 와카야마로 상륙해서 도쿄 공략을 목표로 삼았다. 증원군은 지타반도로 상륙하여 나고야에서 합류하도록 계획했다. 핵심은 아이치현 일대에서 벌이는 결전이었다. 공격군의 함정은 일본 해군의 최신 전력을 망라했다. 상비함대의 다카치오와 후상을 비롯해서 나나와 등 쾌속 순양함들이 상륙지점을 공격했고, 히에 등 호송함과 사쓰마마루 등 운송선들이 속속 육군을 상륙시켰다.

육군은 오사카가 위수지역인 제4사단이 주력이었다. 사단장은 사쓰마번의 사무라이 출신인 다카시마 도모노스케(高島 頼之助, 1844~1916) 중장. 근위사단 제3연대와 제4연대가 가세하고, 포병 1개중대가 지원했다. 방어군도 이에 상대할 만한 규모였다. 순양함 츠쿠시와 텐류, 수뢰정 아타고와 고타를 요지에 포진시켰다. 육군은 나고야가 위수지역인 제3사단이 방어의 주력이었다. 사단장은 에히메현의 고마쓰번 사무라이 출신인 구로가와 미치노리(黒川 通軌, 1843~1903) 중장. 여기에 근위사단의 1개여단과 포병연대가 가세했다. 대연습은 함포사격 속에 방어군의 함대를 뚫고 공격군이 상륙한 후 4월 1일 한다촌(半田村)에서 대회를 전개할 때 절정에 도달했다. 그리고 마침내 4월 2일 히라바리촌(平針村)에서 결전을 벌인 다음 종료되었다.

프러시아 전술 전략을 습득한 일본군

1890년의 대연습에 참가한 육군은 3개사단 규모였고, 해군은 쾌속 순양함과 어뢰정을 비롯한 호위함과 운송선 등이었다. 당시 병력의 절반이 아이치현에서 전쟁을 연습한 것이다. 일본 육군은 도쿄·센다이·나고야·오사카·히로시마·구마모토에 7개사단이 주둔했고, 해군 진수부는 도쿄만과 세토내해 그리고 규슈에 배치했다. 이런 군사력은 1882년 임오군란과 1884년 갑신정변이 벌어졌을 때 조선에서 청국군에서 밀려난 일본이 국력을 기울여 양성한 결과였다.

일본의 국정 목표는 조선 침략에 집중되었고, 구미의 근대식 군대체제와 무기 도입을 서둘렀다. 해군은 영국과 독일 조선소에서 함정을 건조하여 암스트롱포와 크루프포를 장착했다. 육군은 영국제 스나이더소총을 매입하고, 무라다소총을 개발해서 대량생산에 들어갔다.

군사력 증강은 보불전쟁을 보고 방향을 확정했다. 보불전쟁은 프러시아 참모총장 몰트케(1800~1891) 장군이 지휘해서 나폴레옹 3세를 포로로 잡은 전쟁이었다. 육군은 프랑스식 진대제를 개편해서 동원사단으로 전환했다. 육군대학은 독일군 장교 야콥 맥켈(Klemens Wilhelm Jacob Meckel, 1842~1906) 소좌를 교관으로 초빙해서 참모를 가르쳤다. 아이치현의 대연습은 메켈 학생들의 실습 훈련이었고, 그 졸업생들이 참모본부 휘하에서 조선침략과 청일전쟁을 주도하게 된다.

참모본부의 전쟁 수행과 조선침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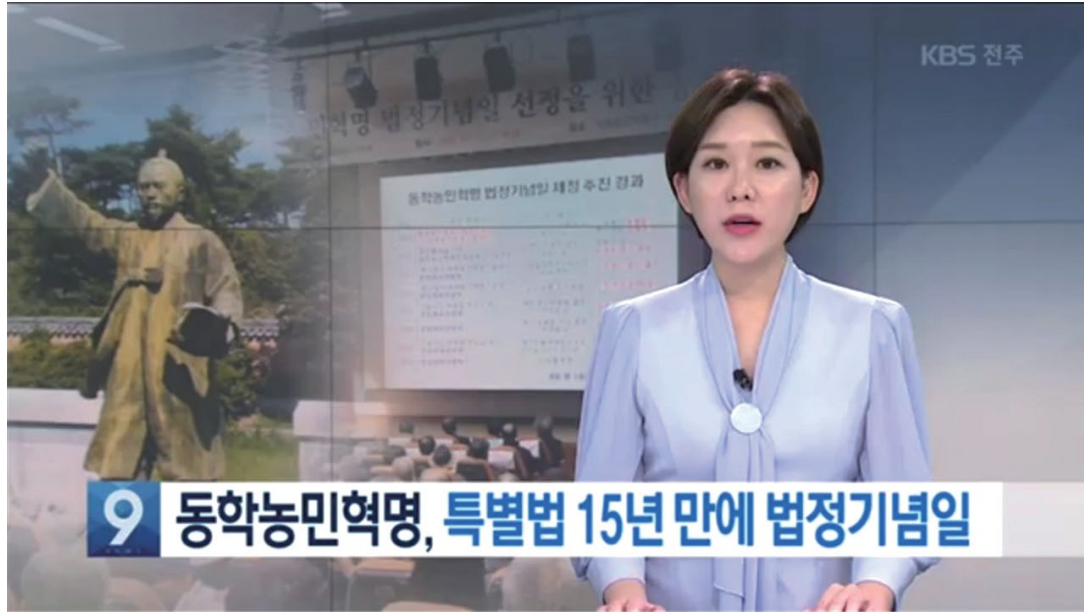
독일식 전쟁은 작전계획에 따라 대병력을 집중하는 방식이었고, 통신·공병·병참·야전병원 등이 최대의 공격력을 발휘하도록 지원했다. 이 모든 계획의 기초가 철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이었다. 일본군 참모본부는 정보장교를 조선과 청국에 보내서 군사기지·병력·무기를 비롯 정치와 경제 상황을 파악했다. 모든 군사 정보는 정밀 분석했고, 전쟁 도발은 시간문제가 되었다. 1894년 청국이 파견한 국정 간섭자 원세개는 정세 파악에 어두웠고, 민씨정권은 극도의 무능·부정·부패를 드러냈다.

정부에 항거하는 조선 농민들의 움직임은 일본공사관과 정보장교가 상세히 조사해서 보고했고, 동학농민군이 봉기하자 일본 정부와 참모본부가 움직였다.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의 최대 국가 목표였던 조선 침략은 1894년에 감행되었다. 바로 1890년 아이치현의 대연습은 전쟁준비를 마쳤다는 신호였다. 일본군의 선제공격으로 시작한 청일 간의 전쟁은 조선 내륙과 황해 바다, 그리고 요동반도와 산둥반도에서 벌인 아시아 최초의 근대식 해전과 육전이었다. 이 전쟁의 모든 계획은 참모본부가 사전에 준비했고, 선전전과 여론 오도, 그리고 역사 왜곡의 주체도 참모본부였다. 양국이 양무운동과 메이지유신의 성과를 투입했던 패권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일본군은 소수 병력만으로 경복궁을 점거했고, 동학농민군을 진압했다. 조선은 국제정치와 군사정보에서 깜깜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망국의 시련을 겪었다. 2019년은 갑오년 동학농민혁명의 100주년이 지난 후 다시 25주년을 맞은 해이다. 세계 대세는 물론 동아시아 정세를 보지 못했던 맹목(盲目)과 같은 상황이 한국에 다시 나타난 해이기도 하다.

신영우 | 동학농민혁명 연구자로 '갑오농민전쟁100주년추진위원회'(1989),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단체협의회, (재)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문체부 특수법인),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등에서 기념사업에 참여하였다.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사진출처 : KBS전주방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2018년 2월 동학농민혁명기념일선정위원회(위원장 안병욱)를 구성하여 기념일 제정을 업무를 추진하였다. 전국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로부터 기념일을 추천받은 후 기념일을 추천한 지자체와 국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황토현전승일인 5월 11일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선정하였고, 행정안전부에 기념일 제정을 건의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2019년 2월 19일(화) 국무회의에 상정, 심의·의결을 거쳐 2019년 2월 26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기념일이 제정됨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5월 11일 그 첫 번째 기념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기념재단은 이번 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SBS 특별기획 드라마 「녹두꽃」 방영(예정)



왼쪽부터 조정석, 윤시윤, 한예리, 최무성.

동학농민혁명 125주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SBS에서 특별기획한 사극(팩션) 드라마 「녹두꽃」(60분)이 4월 26일(금) 첫 방송(24부작, 미니시리즈)될 예정이다. 제작비 200억 원이 투입될 「녹두꽃」은 1894년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을 배경으로 농민군과 토벌대로 갈라져 싸워야 했던 이복형제의 파란만장한 휴먼스토리를 그린 드라마로 알려졌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원지인 고부군의 탐욕스런 이방 백가네 아들이 이 전봉준 등과 만나면서 스토리가 전개된다.

드라마 속에서 녹두장군 전봉준 역할은 배우 최무성이 캐스팅되었으며, 백씨 집안 이복형제 중 백이강 역은 배우 조정석, 백이현 역은 배우 윤시윤, '철의 여인' 송자인 역은 배우 한예리가 캐스팅되었다. 이번 드라마 연출은 SBS 사극 '뿌리 깊은 나무'로 역사 드라마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신경수 PD가 맡았으며, 대하드라마 '정도전'을 집필했던 정현민 작가가 대본을 맡았다.

KBS 특별기획 3부작 '시민의 탄생' 방영(예정)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KBS에서 새로운 시각과 해석의 다큐멘터리 '시민의 탄생'을 방영할 예정이다. 100년 전 그날의 '시민'을 만난다는 주제로 제작되어 오는 4월 방영할 예정인 다큐멘터리는 프랑스·러시아·중국 등 시민혁명으로 민중을 각성시키고 민주주의가 태동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우리나라 '시민'의 뿌리를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출발하여 3.1운

동에 이르기까지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언하고 자주민임을 선언하는 과정에서 찾고있다. 프로그램 제작팀은 동학농민혁명사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이이화(전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역사학자와 함께 지난 2월 21일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하여 촬영하였다.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All history is contemporary history)라고 말하곤 합니다. 역사가 사건이 일어난 당시의 ‘사실로서의 역사’ 그리고 후대에 의해 인식되는 ‘해석으로서의 역사’가 각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1894년 갑오년 이후 지난 한 세기 동안 ‘반란’과 ‘혁명’이라는 극단적인 인식이 공존해온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위상과 그 의미를 바로세우기 위한 사업은 아주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 시 _ 2019년 2월 22일(금)
장 소 _ 국민연금공단 접견실
대 담 _ 김성주 이사장



이번 호 명사대담에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만났다. 전북 전주 출신인 그는 전주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 입학한 후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두 차례 수형생활을 하기도 했다. 시민행동21, 사회적기업지원을 위한 전북네트워크 공동대표 등을 역임한 후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 현실정치에 발을 디뎠다.

〈경력〉 제8~9대 전라북도의회 의원, 제19대 국회의원 보건복지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단장, 現 제 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수상〉 법률소비자연맹 제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2016) 제6회 한국전문인대상 정치부문 대상(2015) 제16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물대상 우수정치 공로상(2014) 국회를 빛낸 바른언어상 모범언어상(2014)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2013) 등

문병학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후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대담을 수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녹두꽃 독자들에게 이사장님 인사와 함께 근황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김성주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성주입니다. 2017년 11월 7일 취임 후 막중한 책임감에 밤잠을 설친 게 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1년 간 국민 신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냉철한 자기반성과 내부혁신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연금다운 연금’을 만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국민연금 만으로도 최소한의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재정계산에 따른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공단 최초로 16개 도시를 순회하며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인터넷과 전화설문을 통해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한편,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금운용 정보공개 수준 확대, 녹취록 수준의 회의록 작성 의무화 등을 추진했습니다.



2019년 공단은 국민연금 제도개선이 올바른 방향으로 논의되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기금의 장기 수익 제고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문병학 1년 반 정도 기간에 참 많은 일을 하셨네요. 근래에 방송이나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세계 최상위급은행 전주사무소를 설치한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김성주 네, 세계 1~2위 수탁기관인 SSBT은행과 뉴욕멜론은행의 전주사무소 설치의 아주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수탁은행의 지방사무소 설치의 전주가 첫 번째이며, 이는 전주에서도 글로벌 경쟁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지방사무소 설치를 위한 금융당국의 승인절차가 진행 중이며, 5월말 경 개소 예정입니다. 전북혁신도시가 공단의 기금운용을 기반으로 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외 자산운용기관의 집적화가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기금과 시너지효과가 있는 금융사의 추가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문병학 국민 복지를 위해 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21세기 초입 현재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현황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주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가난, 질병, 실업, 재해 등으로 생길 수 있는 미래의 불안에 미리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지자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의 하나인 국민연금은 1988년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탄생한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 31년이 흐른 지금, 국민연금은 2,231만 명의 가입자와 연금수급자 460만 명 시대를 맞았고, 기금 적립금 또한 639조 원을 돌파하여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 관리, 보험료 부과, 급여지급 등 제도운영과 기금의 관리·운용 및 노후준비와 장애인지원 서비스, 그리고 기초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복지 서비스기관'입니다. 국민의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는 복지의 중추기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문병학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녹두꽃』 대담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을 모신 것이 다소 의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웃음) 이사장님께서 서울대학교에서 국사를 전공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내 수궁되겠지만... 이사장님께서 언제부터 역사에 관심이 깊으셨는지요?



김성주 역사에 대한 관심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깨알 같은 글씨로 인쇄된 5권짜리 삼국지를 읽었는데 그때부터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가? 단재 신채호 선생님 전기를 읽고 그분의 역사의식에 크게 이끌렸습니다.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이고 혁명가였던 단재 선생님의 전기를 읽고 난 후부터 장차 역사를 공부해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 때의 마음이 그대로 이어져서 역사학과를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녔던 때가 80년대 초였는데, 당시의 시대상황이 많이 가팔랐지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대신에 저 스스로가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겠다고 결단했고, 자연스럽게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문병학 일반적으로 1894년 갑오년 동학농민혁명을 아래로부터 혁명으로 전국적인 반봉건항쟁이자 반외세(반일) 민족항쟁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장님께서 생각하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김성주 아래로부터 혁명인 동학농민혁명은 말 그대로 ‘일대사변’입니다. 동아시아 역사공간에서 한중일 삼국을 비교해보면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역사적 의미는 더욱 커진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근대(近代)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3국의 상황은 서로 사뭇 달랐습니다. 일본은 위로부터 혁신인 메이지유신을 통해 근대화 성공

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조선은 무술변법과 갑신정변이라는 위로부터의 개혁에 실패하였고, 아래로부터 혁명을 이루고자했던 태평천국운동과 동학농민혁명이 자국의 지배층과 외세의 결탁으로 저지되면서 반식민지와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근대의 관문에서 동아시아 3국의 여러 대응에서 단연 으뜸의 위상을 지닌 사건이 동학농민혁명입니다. 중국의 아래로부터 변혁지향성을 보였던 태평천국운동은 그 지도부의 불명확한 정체성으로 인해 뚜렷한 한계를 보였지만 조선의 농민들이 ‘사람이 하늘이다’는 차원 높은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들어 올린 보국안민, 제폭구민, 척양척왜라는 가치는 서구 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침략이라는 세계사적 흐름을 명확하게 읽어내고 여기에 대응한 동학농민혁명은 그 차원을 달리하는 으뜸의 위상을 지닌 일대 사변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학 저희 재단은 동학농민혁명 애국애족 정신의 범국민적 확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전북 정읍시 황토현전적지(국가사적 295호) 일대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17년 말 완공목표였으나 이전 정부에서 지방비 분담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대통령선거 이후 전액국비로 사업비가 반영되어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17년 여름철 이사장님께서 대통령직속기구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단장으로 활동하실 때 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성주 참여정부 때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기반 구축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동학농민혁명은 많게는 수십만의 희생자가 발생한 대규모의 농민항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면서 반란사건으로 왜곡되고 축소된 채 역사의 뒤편길에 버려져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넋을 기리고 추모할만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런 사정을 반영하여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검토 등을 거쳐 전액국비사업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까지 마쳤는데, 지난 정부에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지방비 50%를 분담하라고 하면서 정부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중단된 상태라는 얘기를 듣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확인해보았는데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논의했습니다. 중단 위기에 놓였던 공원조성사업이 다시 전액국비가 반영되어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문병학 이사장님께서 잘 알고계시는 것처럼 동학농민혁명은 일제강점기와 해방이후 세 계사적 차원에서 전개된 동서냉전체제 구축시기에 빚어진 국내외 정치정세의 극심한 혼란 등을 거치면서 반란사건으로 왜곡되고, 전라도사건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전후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기념사업단체들이 창립되어 ‘동학농민혁명 역사바로세우기’ 사업이 대중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 결실로 2004년 3월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특별법에 따라 저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설립되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애국애족 정신을 확산하는데 있어서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All history is contemporary history)라고 말하곤 합니다. 역사가 사건이 일어난 당시의 ‘사실로서의 역사’ 그리고 후대에 의해 인식되는 ‘해석으로서의 역사’가 각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1894년 갑오년 이후 지난 한 세기 동안 ‘반란’과 ‘혁명’이라는 상반된 인식이 공존해온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위상과 그 의미를 바로세우기 위한 사업은 아주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기념한다는 것, 그 행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역사의 현재화’가 아닐런지요? “과거의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한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의 참된 의미도 이 지점에서 깊이 되새겨 봐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학 이사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한국 근·현대사는 극심한 부침(浮沈)의 연속이었습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도 시기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 지난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특별법 제정 이후 줄곧 논의되었던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도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거세된 전국적인 반일민족항쟁으로서의 면모를 되살리고, 동아시아적 위상과 의미를 찾아나가야 한다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동아시아적 위상이나 그 의미에 대한 이사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김성주 19세기 중엽에 일어난 중·영전쟁, 이른바 제1, 2차 아편전쟁 등으로 시야를 넓혀서 동학농민혁명사를 재해석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현재화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학농민군이 제1차 점령목표였던 전주성을 점령한 후 전라도 53개 군현에서 근대적인 폐정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차원에서 근대민주주의 효시라고 말해도 그다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868년 메이지유신을 거쳐 일본이 단행한 민주주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아



니라 서구에서 이식된 국적불명의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우리와 같은 아래로부터 진정한 혁명을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낡은 신분제라는 봉건체제를 개혁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아래로부터 일어나 추구했던 동학농민혁명이 진정한 의미에서 동아시아 근대민주주의 시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학 네, 이사장님. 얘기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역사학도였던 이사장님과 참 뜻깊은 대담이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선양하는 일에 대해 사명감을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아쉽지만 여기에서 대담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최근 ‘황토현전승일’인 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국가기념일로 확정되어 첫 번째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다시 새기고,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병학 바쁘신 중에서 대담을 수락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사회 개최



2월 26일(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회의실에서 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 결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기념식 개최계획(안)이 보고되었다. 참석한 이사들은 정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첫 번째 행사이니만큼 이번 기념식을 전 국민이 참여하는 역사문화 축제로 기획·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념식을 동학농민혁명 애국애족정신의 범국민적인 확산의 기점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논의되었다.

운영위원회 개최



2월 25일(월) 기념재단 교육관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사회에 상정할 2018년 결산(안) 검토와 함께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기념식 개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념관 운영위원회 개최



2월 22일(금) 기념재단 교육관 회의실에서 2019년도 동학농민기념관운영위원회(1차)가 열렸다. 새롭게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선출한 후 2018년 결산(안)을 심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선윤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기타사항 논의에서 2018년 추진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전시실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기념관 소장 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DB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문장준의 증손자 문형식

일시 : 2019. 2. 27.
장소 : 관악리전적지(충남 예산군)

Q 이번 호의 유족 인터뷰는 참여자 문장준의 증손자 문형식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먼저, 녹두꽃 독자를 위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문 장자 준자 증손자 문형식입니다. 제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동학 100주년 기념행사 때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활동해오고 있는데, 현재 사단법인 동학농민유족회 이사직과 함께 충남예산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Q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자 상해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반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을 1894년 겨울 공주 우금티에서 일본군의 근대적인 신무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하여 미완의 혁명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그 정신은 항일의병으로 이어졌고, 일제강점기 3·1운동과 항일독립투쟁 그리고 해방이후에도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최근 광화문 촛불시민혁명으로 계승되었다고 얘기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으로서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A 네, 감회가 남다르지요. 남다르긴 한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엇그저께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단체에서 등기로 초청장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참여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Q 증조부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처음 누구에게 들으셨나요?

A 15살 무렵에 할아버지께 들었어요. 내가 1937년생이니까 아마 그 때가 1950년대 초 전쟁통이었어요. 증조부께서 관악리전투, 홍주성전투 등에 참전했다가 붙잡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후 정착을 위해 고전했다는 얘기를 그때 처음으로 할아버지께 들었어요.



Q 증조부께서 1984년 2월에 내포지역의 동학(東學)의 지도자 박희인의 권유로 입도했다는 기록이 확인됩니다. 이를 근거로 2004년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증조부님을 참여자로 등록하시고, 선생남도 유족등록을 마치셨지요? 증조부님에 대해 조부님께 들은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증조부님에 대한 얘기는 주로 할아버지께서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워낙에 오래되어서 다 잊어버렸어요. 확실하게 기억나는 것은 증조부께서 신례원 관작리전투에 참전하여 승리한 다음에 홍주 성전투에서 패배한 뒤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해미읍성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 처형을 하려고 하는데 다행스럽게 아는 사람이 있어서 처형 전날 증조부님을 몰래 빼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후 그곳에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서산군 원봉면 방갈리, 지금은 태안군으로 갈라졌는데 그때는 예산이나 태안이나 서산군에 속해있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방갈리로 가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숨어들어가 정착하려했는데 여의치 못해 이북(북한)까지 올라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정착하기가 마땅치 않으니까 다시 내려와서 동학하던 30명이 천안군 광덕리 산골로 숨어들어 그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산골이 삼중으로, 말하자면 '첩첩산중'인 거기서 7년 6개월을 숨어서 지냈다고 해요. 거기에서 거주하던 때 증조부께서 할머니를 며느리로 맞아들인 것 같아요. 할머니 고향이 광덕리이거든요. 그 할머니님이 어깨너머로 천자문을 뎠 정도로 영특하신 분이셨대요. 그 덕분에 저도 한문을 할머니에게 배웠어요. 동학농민혁명 이후 어려운 집안을 그 할머니께서 끌고 오셨어요. 고모들 네 분에다가 작은아버지 한 분, 우리 아버지 이렇게 육남매를 두셨는데 큰고모는 문보물이라고 삼교천에 계셨고, 둘째 고모 손이 지금 예산동학농민혁명유족회 총무를 맡고 있지요. 셋째 고모는 서울에 살고, 넷째 고모는 돌아가셨지요.



Q 증조부께서 해미읍성 감옥에 갇혔다가 처형되기 전날 말 그대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와 정착을 위해 여기저기 옮겨 다니시다가 북한까지 갔다가 다시 천안 다시 되돌아와 천안군 광덕리에 정착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증조부님은 언제 돌아가셨는지, 묘소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증조부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아무튼 방갈리에서 배를 타고 정착지를 찾아다니기 시작한 후 이북까지 갔다가 다시 천안 광덕리로 돌아와 정착을 했는데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대요.



Q 증조부님 함자로 된 사료가 발견되어 역사학계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료가 『문장준역사』(文章峻歷史)이지요? 1894년부터 1923년까지 증조부께서 직접 체험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데, 발견경위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조부님과 제 아버지께서 뭘 종이 싸가지고 옛날 초가집 지붕 밑이나 고방 구석진 곳 이런 곳에 숨겨놓고 그러셨어요.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께짜이 하나 있었어요. 증조할아버지 관련 유품이 담긴 상자인데 그것을 할아버지가 보관하셨어요. 저는 그 상자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다락에 작은 께짜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박성묵 씨가 께짜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께짜이에 있는 책자를 보여 주니까 그 것을 사진 찍어서 가지고 갔어요. 그 뒤에 충북대학교 신영우 교수가 찾아와서 그 책자를 보여주었지요. 그 뒤에 천안에 독립기념관을 개관할 때도 신영우 교수랑 몇 사람이 와서 독립기념관에 전시를 한 후 반납하겠다고 증서를 써주고 가져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독립기념관에서 행사가 끝나고 반환을 했는데 반납 과정에서 그 책자가 동학농민혁명 백주년 당시 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을 했던 이용호 씨라고 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돌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에게 반납을 하지 않아서 나중에야 가져오라고 해서 받았지요. 이런 사정으로 그 책자를 내가 다시 돌려받는데 몇 년 걸렸어요. 몇 년이 지난 후 KBS에서 촬영한다고 큰 집영식(문영식 태안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이가 가지고 가서 촬영을 하고 그랬어요. 그 후로 내가 잘 보관하고 있는데 언젠가 충청남도 역사연구소에 찾아와서 자기들이 위탁보관 관리를 해주겠다고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책자는 현재 충남역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지요.

Q 내포지역의 참여자 문장로, 문장준, 문구석 이렇게 같은 성씨를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 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지요? 문장로, 문장준 이 두분은 형제간이고, 문장로의 아들이 문구석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난 해 작고하신 문흥식 선생님, 태안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이신 문영식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그분들 후손이신데....

A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문장로, 문장준, 문구석 이분들이 아마 사촌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Q 그럼 누가 제일 형입니까?

A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안이 당시에 여기 내포지역에서 상당히 기반이 튼튼했던 거 같아요. 재산이나 학식을 갖추고 인품도 인정받는 그런 집안이었다고 그래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문장준 우리 증조부님의 형님이 태안의 참여자 문영식의 증조부이신 문장로 어른이에요. 문장로 그분의 손자가 문원덕이라는 분인데 문영식의 아버지예요. 그분이 1970년대 후반 태안 백화산자락에 동학혁명군추모탑을 사재를 털어서 세웠지요. 그때 문원덕 그 어른이 고생을 많이 했지요. 벼돌 한 장 흔하게 구할 수 없을 때 백화산자락에 추모탑을 세웠으니까요. 그 분이 1966년에 내포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분들을 직접 만나 작성한 책자가 『순도자 명단』이라고 알고 있어요.

Q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지난 주 화요일이었던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거기다가 26일 바로 어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5월 11일로 공포되어 기념일 제정이 최종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특별법 이후 15년 동안 논의에 논의를 거듭해온 기념일이 제정되어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추진해온 많은 분들이 기쁨을 나누려고 제게 전화를 많이 걸어왔습니다. 참여자 유족이신 선생님께서도 유난스럽게 감회가 깊고 기쁨 또한 클 텐데 이점에 대해 말씀해주시요.

A 정말 기쁩니다. 아주 말할 수 없이 기쁜 일이 제가 죽기 전에 이루어져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죽어서 조상님들을 뵈는 때도 그래도 조금은 덜 미안하게 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반란군 후손이라는 명예를 뒤집어 쓴 채 때로는 놀림을 받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살아온 우리 유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념일 제정을 위해 실무를 맡아 애쓰셨을 우리 기념재단이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기념일 제정에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일본놈들이 반란사건으로 왜곡하고 전라도사건으로 축소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기점으로 정부에서 기념식을 성대하게 열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나라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갑오년에 우리 조상님들은 입성하지 못했지만 그 후손들인 우리라도 서울로 입성해서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학농민혁명이 신분제를 걷어내고, 왜놈들의 침략을 막아내서 국권을 수호하고자 했던 엄청난 의미를 지닌 혁명이었음을 국내외에 천명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아울러 말뿐인 명예회복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일본군의 국권침탈을 저지하게 위해 고귀한 목숨을 기꺼이 내놓고 희생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분들을 하루빨리 정부가 독립유공자로 지정하는 일을 추진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Q 끝으로 빠뜨린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A 부탁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유족도 아닌 사람이 거짓으로 유족행세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지난 해 11월 24일 관작리 행사를 마치고 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원천에 사는 오00이라는 사람과 시비가 붙었어요. 그날 관작리 행사를 한 후 23명이 버스를 대절해서 답사를 갔는데, 나에게 명색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행사마다 참석해야지 왜 어떤 때는 참석하고 어떤 때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그런 상황에서 그 차에 함께 탔던 예전에 예산군 노인회장을 맡으셨던 분이 그 사람을 제지했던 일이 있었어요. 오00라는 사람은 사실 유족도 아닌데 유족행세를 하고 다닌다고 얘기들이 들려요. 나중에 내가 그 사람에게 당신이 유족이라는데 어느 쪽 누구의 후손이라고 물으니깐 공주에 사는 유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남식 우금티 기념사업회 이사장과 참여자 유족인 이원하 씨에게 물어보니 그런 사람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인데 재단에서 참여자와 그 유족을 조사하고 등록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등록 이후 관리를 잘하는 방안도 강구해줬으면 합니다.



Q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참여자 조사와 등록, 유족 등록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기념재단이 위탁받아 연구조사부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재단 연구조사부에 전달해서 참여자 연구조사와 등록 그에 따른 유족을 등록 업무를 추진할 때 재단에서 할 수 있는 범주에서는 재단에서 차질 없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등록된 유족분들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재단도 재단이지만 유족들의 모임인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에서 체계적으로 유족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A 고맙습니다.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더 살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살아있는 동안 힘닿은 데까지 우리 선조들의 애국애족정신 계승·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재단의 일을 적극 돕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남 공주지역 유적지를 찾아서

문병학 | 기념재단 기념사업부장



Ⅰ 동학농민혁명과 공주(公州)·1Ⅰ

1894년 당시 충청감영 소재지였던 공주(公州)는 동학농민혁명 이태 전인 1892년 동학교단의 공주취회(公州聚會)가 열렸던 장소이다.

1892년 동학교도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동학교도에 대한 관의 탄압도 높아졌다. 이에 종교적 지향성을 강하게 보이던 동학교단 내부에서 관의 탄압을 대중적인 정치활동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고, 마침내 10월 20일경(양력 12. 8.) 서인주·서병학 등이 중심이 되어 공주에서 대중적인 정치집회를 열리게 되었다. '공주취회'로 불리는 이 사건은 충청도 관하 지방관들의 동학교도에 대한 불법적인 수탈행위 금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종교적 지향성이 강한 동학교단 내에 현실적인 문제를 대중적인 정치집회를 통해 해결하려는 변혁지향세력의 움직임이 표면화하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후 동학교단에서는 1893년 11월 2일(양력 12. 20.) 보다 확대된 삼례집회를 개최하였고, 1893년 2월 광화문 복합상소와 외국공사관 문 앞에 척왜양(斥倭洋) 벽보 사건 그리고 같은 해 3월 충청도 보은 집회와 전라도 금구·원평집회로 이어졌다.

공주집회 터



■ 공주집회 터(옛 충청감영, 現 공주사대부교)



■ 복원된 충청감영의 선화당(공주박물관 앞)

-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197, 240, 241 일대

이곳은 1892년 10월 동학교단에서 주도한 공주집회가 열렸던 장소이다. 당시 충청감영 자리였던 이곳에는 현재 공주사대부교가 들어서 있다.

188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동학교단의 교세가 삼남지방 전역으로 급격하게 확산되었다. 조선정부에서 금지시킨 동학의 세력 확대는 각급 기관의 동학교도 탄압의 가중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이 시기에 동학교도들이 재산을 몰수당한 채 거리로 쫓겨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런 속에서 그동안 종교적 지향성을 강하게 보였던 동학교단 내부에서 교도들에 대한 관의 탄압에 대중적인 정치활동으로 맞서자는 요구가 높아졌고, 마침내 10월 20일(양력 12. 8.) 공주에서 동학교단의 첫 번째 대중적인 정치집회인 공주취회(公州聚會)가 열리게 되었다.

견준봉과 두리봉



■ 주미동에서 바라본 견준봉(정면)과 두리봉(왼쪽)

- 충청남도 공주시 주미동 산 46, 산 53

우금티전투의 최대 격전지는 우금티와 견준봉(234m) 사이였다. 견준봉은 옛 사람들이 ‘개쫓배기’, ‘가죽배기’로 불린, 우금티 마루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산 중 가장 높은 산봉우리를 말한다. 두리봉(192m) 또는 정주봉은 견준봉으로부터 남쪽으로 800여m 지점에 솟아난 산봉우리를 말하는데, 우금티전투 당시 이곳에 동학농민군 최전방 지휘부가 있었다고 한다.

| 동학농민혁명과 공주(公州)·2 |

충청도 공주는 1894년 11월 8일(양력 12. 5.)과 9일(양력 12. 6.) 동학농민혁명 당시 최대전투였던 우금티전투가 벌어진 역사적인 고장이다.

1894년 1월 고부농민봉기를 도화선으로 무장에서 기포하여 백산에서 대오를 확대한 동학농민군은 황토현전투·황룡전투에서 관군과 경군을 연달아 격파하고 전라도 수부였던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조선정부는 건국자의 분향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조선정부 조세의 절반가량을 거둬들이던 전주성 함락에 큰 충격을 받았다. 실제로 전라감영이 점령된 것은 조선 건국 이래 ‘반란군’에 의해 감영이 점령된 것은 처음이었다. 이에 조선정부는 긴급 대신회의를 열어 청나라에 군대 지원을 요청하였고, 일본도 1895년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체결된 텐진조약 등을 빌미삼아 조선에 군대를 파병하였다.

이처럼 조선을 둘러싼 국내외적 정치정세가 요동치는 속에서 동학농민군은 조선정부와 화약을 맺고 전주성을 비워주고 고향으로 돌아갔으나 일본군은 조선정부의 철병 요구를 무시한 채 경복궁을 무단으로 점령하여 친일내각을 수립하고 청일전쟁을 도발하는 등 폭거를 자행하였다. 급기야 동학농민군은 일본군 축출을 전면에 내걸고 1894년 9월 10일경(양력 10. 8.) 전라도 삼례에서 제2차 봉기를 단행하였다. 북상(北上)하던 동학농민군은 10월 12일경(양력 11. 9.) 논산에서 충청도와 경상도 북부지역의 동학농민군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북접 동학농민군과 연합하여 충청감영이 있던 공주성을 향하여 진격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은 우금티 등지에서 일본군과 관군 등의 연합부대와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나 근대적인 신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을 극복하지 못한 채 쓰러지고 말았다.

남월(南月) 전투지

-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목동리 29-1, 29-8, 산 1-1 일대



■ 남월 전투지

남월전투는 공주성을 둘러싸고 동학농민군과 일본군과 관군 등의 연합부대가 벌인 전투 중에서 맨 처음 벌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봉준 장군은 공주 남쪽 30리 지점의 경천을 점령한 후 휘하 부대를 둘로 나누어 한 부대는 이인 방향으로, 또 한 부대는 효포 방향으로 진격시켰다.

이 무렵 일본군 소위 스즈키 아키라(鈴木彰) 휘하 일본군 50여 명과 관군 측의 충청감영 참모관 구완희 휘하 감영군 4개 분대, 서산군수 겸 경리청 영관 성하영 휘하 경리청 1소대 등이 이인 쪽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구완희 휘하 감영군이 구절산 남쪽 남월촌(南月村)에 주둔하고 있던 동학농민군을 공격하였다.

이인전투지(취병산/이인역 터)



■ 취병산(現 이인중학교 뒷산)



■ 이인역 터(現 이인초등학교)

- (취병산)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 286일대
- (이인역 터)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 126일대

취병산과 이인역 일대는 우금티전투에 앞서 동학농민군과 일본군·관군 등의 연합부대가 전투를 벌였던 곳이다. 이인역의 위치는 현재의 이인초등학교 자리이며, 취병산은 현재 이인중학교 뒷산이다. 이인전투는 1894년 10월 23일 12시경 이인역 일대에서 벌어졌다. 성하영 휘하의 경리청 병사와 일본군이 이인역(利仁驛)에 도착하였을 때 동학농민군은 숲처럼 수많은 깃발을 꽂아두고 집결해있었다. 일본군과 성하영 관군이 동학농민군에게 기습공격을 가하였는데, 성하영 휘하의 관군은 이인역참 남쪽으로부터 총을 쏘며 공격하였고, 일본군은 이인역참 북쪽 산에 올라 나무 뒤에서 몸을 숨긴 채 총을 쏘아댔다. 관군과 일본군의 기습을 받은 동학농민군은 이인역참 건너편에 있는 취병산(翠屏山)으로 퇴각하였다. 취병산에서 전열을 정비한 동학농민군이 이인역을 점거한 일본군과 성하영 휘하 관군 쪽을 향해 계속해서 대포를 쏘면서 공격을 가하는 사이 날이 저물자 일본군과 관군은 이인역참을 점거하고 있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충청감영으로 회군하였다.

오실마을 전투지



■ 오실마을 절골

- (절골) 충청남도 공주시 오곡동 산 119일대

우금티전투 때 효포 쪽에서 들어오던 동학농민군 진격로 상에 있던 마을로 동학농민군과 일본군, 관군 등 연합부대 사이에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이다. 동학농민군은 1894년 10월 25일경의 효포에서 전투를 치룬 후 전열 재정비를 위해 논산으로 일시 후퇴하였다. 논산에서 2만여 명의 농민군이 집결하자 곧바로 노성과 경천으로 진출하여 군량을 나르고 포대를 설치하면서 전투를 준비하였다. 이후 11월 8일 전열 재정비를 마친 동학농민군이 두 갈래로 나누어서 공주성 공격에 나섰다. 한 부대는 논산에서 고갯길을 넘어 곧장 오실산 옆길을 따라 이인 쪽에서 우금티를 공격하였고, 또 한 부대는 노성현 뒷산과 경천 쪽에서 판치와 효포를 공격하였다.

동학혁명군위령탑



■ 동학혁명군위령탑

- 충청남도 공주시 금학동 327-2, 327-9, 329-6 일대
- 사적 제387호

이 탑은 1973년 ‘동학혁명군위령탑건립위원회’에 의해 건립되었다. 1894년 9월 10일경 전라도 삼례 일대에 대도소를 마련하고 제2차 봉기를 위해 농민군을 규합한 전봉준은 한 달 정도 뒤에 북상을 시작하여 10월 12일에는 논산에 도착하였다. 여기서 손병희가 이끄는 북접의 농민군과 합류한 전봉준 장군은 10월 16일 박제순에게 반일항전에 동참을 촉구하는 글을 띄웠다. 전봉준 장군 휘하 동학농민군은 북상하여 10월 22일 공주 남쪽 30리 지점의 경천을 점령하였고, 북접에서 내려온 동학농민군은 공주 동쪽 30리 떨어진 대교(大橋)에 진을 쳤다. 남접과 북접 동학농민군은 각각 남쪽과 동쪽에서 공주를 협공하려했던 것이다. 이후 20여일에 걸쳐 동학농민군과 일본군과 관군 연합부대 사이에는 공주감영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공주성을 둘러싼 최초의 전투는 1894년 10월 23일 이인에서 벌어졌다. 경천에 주둔하고 있던 전봉준 장군은 부대를 둘로 나누어 북접 동학농민군은 이인 쪽으로 보내고 자신은 효포 쪽으로 나아

갔다. 이 과정에서 이인역에 진을 치고 있던 동학농민군이 10월 23일 스즈키 아키라(鈴木章) 대위가 인솔하는 일본군 50명과 성하영의 경리청 병력, 구완희가 이끄는 충청감영 병력 등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취병산까지 후퇴하였다. 그 이튿날인 10월 24일에는 대교(大橋)로 진격해있던 북접 동학농민군이 경리청 부영관 홍운섭의 공격을 받아 퇴각하였다.

충청감사 박제순의 지원 요청을 받은 관군과 일본군은 공주로 속속 집결하였고, 동학농민군의 공주성 공격이 개시된 10월 24일 무렵 공주에 들어온 병력은 관군 810명, 일본군 2개 소대와 2개분대 약 120여 명이었다. 여기에 충청감영병과 민보군 등이 합세한 것으로 보인다. 우금티전투 때 일본군 지휘 하에 관군의 배치상황을 살펴보면 ①금학동 : 통위영 대관 오창성과 교장 박상길 ②능치 : 경리청 영관 홍운섭·구상조, 대관 조병완·이상덕 ③효포 봉수대 : 통위영 영관 장용진과 대관 신창희 ④우금티 : 성하영, 백낙완, 영장 이기동 등이었다.

우금티전투는 11월 8일 밤부터 시작되어 이튿날인 11월 9일까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동학농민군은 11월 9일 10시경부터 공주의 동쪽 판치 뒷산으로부터 서쪽 봉황산 기슭까지 약 3, 40리에 걸쳐 전선을 편 채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인에서 우금티와 오실 뒷산 두 방향으로 공격을 시작한 동학농민군은 오후 8시경까지 일본군과 관군 등 연합부대를 상대로 4, 50여회 치열하게 공격하였으나 크게 패배하고 말았다.

우금티전투에서 희생된 동학농민군의 숫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전봉준은 전투의 참상에 대해 “2차례 접전 후 1만여 명의 군병을 점고(點考)하니 남은 자는 3천여 명을 넘지 않았으며, 그 후 또 2차례 접전한 후 점고하니 5백여 명에 불과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처럼 많은 동학농민군이 쓰러진 공주 우금티 일대에는 농민군 집단매장지로 얘기되는 곳들이 많다. 곱나루 쪽에서 감영 뒤쪽으로 이어지는 ‘하고개’와 서쪽에서 공주로 진격하다가 희생된 농민군 시신이 널려있었다는 ‘송장배미’(현재 공주의료원 옆) 등이 대표적인 곳이다.

송장배미



■ 송장배미, 기념비



■ 송장배미, 기념동상

-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247
- 향토문화유적기념물 제4호

이곳은 우금티전투 당시 곱나루 쪽에서 봉황산 후면을 공격하다가 전사한 동학농민군이 묻힌 곳이다. ‘동학농민전쟁전적지 송장배미’라고 새겨진 기념비와 청동으로 기념상이 제작된 것은 2000년 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가 추진한 환경정비 때이다. 현재 연못인 이곳은 갑오년 당시에는 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을 ‘송장배미’라고 불렀다고 전해지고 있다.

공주의 지형은 금강이 북쪽을 휘감고 있으며, 나머지 동·서·남쪽은 산들이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공주로 들어가는 길은 삼면이 가파르고 좁은 고갯길을 넘어야 한다. 공주가 갖는 특이한 지형 때문에 동학농민군을 5갈래의 길을 통해 공주를 공략하고자 했다. 진격로 첫 번째는 우금티, 두 번째는 효포에서 능티(곰티 혹은 웅치)를 넘는 길, 세 번째는 검상마을에서 새재를 넘어 일락산을 타고 공주로 내려오는 길, 네 번째는 곱나루에서 웅진동을 거쳐 하고개 또는 봉황산 뒤편을 통해 감영으로 들어오는 길, 다섯 번째는 주미산에서 우금티와 곰티 사이의 골짜기를 통해 공주로 들어오는 길이다.

우금티가 공주의 인후(咽喉)에 해당한다면 곱나루에서 봉황산을 넘는 길은 목덜미에 해당한다. 그래서 봉황산을 넘는 길을 택한 동학농민군 중 일부는 장꾼으로 변장하여 하고개를 넘은 다음 공주를 기습적으로 공격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관군과 일본군의 반격으로 송장배미 부근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 참고자료 |

- 『동학농민전쟁 연구』, 배향섭,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6.
- 『실록 동학농민혁명사』, 신순철·이진영, 서경문화사, 1998.
- 『東學 2 -해월의 고난과 역정』, 표영삼, 통나무, 2005.
- 『공주와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2005.
- 『公山剿匪記』,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9』,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1.
-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물 현황조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1.

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를 찾아서



일시_ 2019. 1. 23.(수) 13:00~16:00

장소_ 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사무실

대담_ 박남식 이사장

윤여관 이사

이원하 대외협력국장



▲ 박남식 이사장

문병학

반갑습니다. 오는 4월 1일자로 발행될 기념재단 소식지 『녹두꽃』(통권 35호) 지역대담을 동학농민전쟁공주우금티기념사업회와 갖게 되었는데,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윤여관 이사님, 이원하 대외협력국장님이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뜻깊은 내용으로 채워질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먼저 녹두꽃 독자들을 위해 인사말을 곁하여 근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식

안녕하십니까. 우금티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남식입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련단체 임원님들과 회원 여러분께 안부를 여쭙습니다.

문병학

이사장님, 좀 길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웃음) 이사장님은 공주지역에서 우금티기념사업회 이외에도 맡고 계시는 일이 많지요? 이사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일 등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시지요.

박남식

예, 이전에 전국농민회 공주지부인 공주농민회 회장을 지냈고, 지금도 공주농민회 산하 농협협동조합개혁위원장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공주농민회 일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일을 맡다보니 자연스럽게 공주민주단체협의회 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문병학

윤여관 이사님, 그리고 이원하 대외협력국장님도 인사를 겸하여 근황에 대해 말씀 해주시지요.

윤여관

예, 반갑습니다. 우금티기념사업회 창립시기부터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나름대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껏 활동해오고 있는 윤여관입니다. 전국의 기념사업단체 관계자 여러분과 동학농민혁명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립니다.

이원하

반갑습니다. 이원하입니다. 저도 우금티기념사업회 단체 창립 무렵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 역사바로세우기에 몸담아 나름대로 힘을 기울여왔습니다. 지금은 우금티기념사업회에서 대외협력국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함께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작년부터 '공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라는 단체의 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원하 대외협력국장

문병학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영일, 지수걸, 조재훈 교수님 그리고 정선원, 윤여관 등등 여러 선생님들과 처음 만났던 게 1993년이니까 벌써 26년이나 되었네요. 1994년 6월 공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연합체 형태로 창립된 '갑오농민전쟁 공주우금티기념사업회'창립을 얘기하려면 그 이전인 1993년 이른 봄에 결성되어 활동했던 '우금티전적지성역화추진위원회'(위원장 진영일, 약칭 '우전추')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무렵의 일들을 떠올려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식

그렇습니다. 문부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1993년 1월에 일간신문에 우금티 전적지 부근에 주유소를 건립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실렸어요. 그 기사를 접한 직후 동학농민군의 최대 격전지였던 우금티 전적지에 주유소를 건립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대여론이 강력하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교조 충남지부, 전국농민회 공주지부 등 공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우금티 전적지 주유소 건립을 반대하는 '공주사랑시민모임'을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관계자는 물론이고 대학교수, 각급 학교 교사, 일반시민 등 151명에게 서명을 받아서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공문과 함께 반대서명 연명서 전달을 통해 '우금티 전적지 부근 주유소 건립계획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때 뜻을 함께한 사람들이 '우전추'로 이어진 것입니다.

문병학

그런 노력으로 결국 '주유소 건립계획'은 철회되었지요? 철회를 시킨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흐름을 이어서 이듬해인 1994년 동학농민군 최대 전적지였던 우금티 고개 부근에 세워진 '동학혁명군위령탑'(1973.11.11.) 일대를 국가사적으로 등록시키는 성과를 이루었지요?

윤여관

네, 맞아요. 주유소 건립계획이 결과적으로 우금티 전적 국가사적 등재를 추동한 셈이지요.(웃음) 공주사랑시민모임, 우전추(우금티전적지성역화추진위원회), 우금티동학농민전쟁100주년추모사업회(現 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창립 등이 하나의 맥으로 이어졌습니다. 초기에 주유소 건립 반대를 주도했던 공주사랑시민모임의 중심은 전교조와 농민회 등 공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었어요. 이런 움직임 속에서 진영일 교수님과 조재훈 교수님 그리고 고인이 되신 구상희 선생님 등 여러 어른들께서 모여 우전추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우전추가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맞아 동학농민전쟁100주년기념사업회 창립으로 이어진 것이지요.

문병학

우금티기념사업회가 창립된 1994년 6월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고조되어 있었어요. 문민정부 출범으로 사회적인 분위기의 변화에 따라 소위 진보적인 단체로는 처음으로 전주의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서울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 1993년 7월 30일 한낱한시에 법인설립 승인을 받았지요. 그래서 1994년



▲ 윤여관 이사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전주사업회와 한국민예총에서 88백만원, 120백만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전국적인 기념사업을 펼칠 수 있었지요. 그해에 국비 2억여 원을 지원받아서 동학농민혁명100주년기념사업단체협의회 주최로 2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전북 정읍 일대에서 고부봉기 역사맞이 곳을 펼쳤고, 4월 29일과 30일에는 전주시청 광장을 비롯한 전주시 일원에서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대회 등을 성대하게 열었지요. 그리고 100주년 기념사업의 대미(大尾)로 10월 29일과 30일 우금티전적지 바로 아래 위치한 공주교육대 대운동장에서 추모제례를 거행했었지요.

윤여관

맞아요. 그때 문부장님이 전주의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동학농민혁명100주년기념사업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을 겸했지요? 그 해에 갑사유스호스텔 등에서 전국에서 단체들이 모여들어 회의를 자주 했었지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공주지역에서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많은 단체들이 연합체 형식으로 함께했어요.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100주년 행사를 마무리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어 '갑오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를 정식으로 창립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로 넘어선 후 사단법인 설립 승인이 중앙부처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이양되었고, 이때 우리 우금티기념사업회 충청남도예총에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병학

얘기를 조금 진전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공주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정신선양사업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남식

이인면사무소 앞에 갑오년 당시 충청감사였던 박제순 비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주민들이 이 비를 없애야 한다고 했었나봐요. 그때 박제순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일본군 앞잡이 노릇을 했으니까 비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사람들과 그것도 역사니까 없애지 말고 보존하자는 사람들이 있어서 의견대립이 있었어요. 어쨌거나 그 비를 없애지 않고 현재도 이인면사무소 앞에 있거든요. 우금티에 박정희 정권 때인 1973년에 세워진 동학혁명군위령탑에 대해서도 한때 철거하자, 그냥 놔두자 이렇게 의견이 대립되었던 적이 있었지요.

문병학

어쨌거나 동학혁명군위령탑은 이런저런 논란은 있었지만 1994년 100주년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힘입어 그 해에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었지요? 위령탑 바로 뒤편 흙으로 만든 봉화대, 탑을 마주보고 선 자리에서 오른손 편에 돌무더기 등이 100주년 기념사업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윤여관 이사님이 직접 제작을 진두지휘하셨지요?(웃음) 그때 얘기를 좀 해주시지요.

윤여관

맞아요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면서 충남민예총 공주지회에서 논의를 거쳐 흙으로 봉화대를 만들고 돌탑(돌무더기)을 만들고 묵비(木碑) 그러니까 나무에 시를 새겨서 나무 비를 세웠어요. 그때 1백만 원인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100주년 기념 조형물'로 만든 것입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연가를 내고 학교를 안 나가면서 만들었어요. 봉화대는 자원봉사 학생 몇 명을 데리고 그냥 저 혼자 만들었어요. 봉화대에 등성등성 끼워넣은 돌로 만든 너와는 심우성 선생님이 주셨어요. 흙담은 노무현 전대통령 사저를 지은 지금은 고인이 되신 건축가 정기용 선생님이 흙 건축물에 대한 고증을 해주셨어요. 정기용 선생님이 당시 충남지사님하고 친구사이였는데 마침 그 시기에 정기용 선생님이 프랑스에서 귀국을 했어요. 그분이 충남도에 얘기해서 흙으로 봉화대를 만드는 작업비가 조금 지원되었던 거예요. 봉화대를 만들 때 처음에는 정기용 그 분이 보내준 답들을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근데 그걸로 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봉화대 전체를 씌울 수 있는 거푸집을 세우고서 그 위에 올라가서 두드리면서 흙을 쌓아올리고 두드리기를 거듭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아무래도 행사 때까지 완성을 못하게 생겨서 나중에는 돌담을 기계를 동원하여 마무리했어요.

문병학

답사 안내를 하느라고 이곳에 오면 100주년 이후 몇 년 동안까지는 위령탑 앞 계단을 끝까지 오르면 바른 쪽에 시를 새겨넣은 나무비가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자취를 감추었어요. 어디 다른 곳으로 옮긴 건가요?

윤여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썩어서 없어진 것입니다. 그 묵비(木碑), 나무로 만든 시비(詩碑)는 수입산 소나무에다가 공주민예총의 문학과 회원 등이 공동창작단을 만들어 쓴 시를 새겨넣었었지요. 나무 비에 글자를 한 자 한 자 전부 조각으로 새겨넣었

어요. 몇 날 며칠을 밤새서 글자를 새겼어요. 글자를 새긴 후 목비에 칠을 해서 세워놔요. 좋았으려면 그걸 안했더니 몇 년 있다가 그게 썩어서 넘어졌어요.

문병학

네, 그랬었군요. 제가 100주년 이후로도 거의 매년 몇 차례씩은 답사안내를 하느라고 위령탑을 찾았는데, 어느 해인가는 봉화대도 다 무너져갔었는데... 우금티기념사업회에서 가끔씩 보수를 합니까?

윤여관

처음에는 흙만 가지고 했던 거라 비오니까 무너져서 98년도에 봉화대 내부에 벽돌을 놓고 밖에서 다시 흙을 붙이고, 봉화대 중간 중간에 돌 너와를 끼워서 보수를 했어요. 4년 만에, 그러니까 1998년도에 다시 만든 거죠.

이원하

작년에 새로 했는데, 완전히 황토시멘트로 싹 새로 보수했어요.

박남식

시멘트하고 황토하고 섞은 거죠.

윤여관

지금 다시 그걸 복원을 해놨는데, 그건 복원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쓰러져가는 모습 그대로 놔두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낡아가는 없어져가는 자연의 모습 그대로의 시설물이 의미가 더 있는데... 쓸데없이 돈을 쓴다니까요 공주시에서 담도 새로 해놨어요. 도대체 왜 다시 했는지 몰라요. 한 번 세워놓으면 세월이 흐름에 따라 무너져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게 그 나름대로 훨씬 의미가 있는데...

문병학

네, 윤여관 이사님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인 것 같아요. 별도로 토론이 필요한 사안일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2006년 전후에 제가 (재)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무처장으로 경복궁 안에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때 재단 이사회에서 특별법에 명시된 동학농민군 추모시설은 역사성 등에 비춰볼 때 우금티전적지 일대에 건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논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는 물론이고 공주시와 우금티기념사업회 임원님들과 회의를 몇 차례 가졌었는데, 그때 “근대의 기념시설물이 죄다 콘크리트 등으로 세워져서 없어지지 않는다. 이는 지양해야 한다” 이런 논리로 결국은 공주에 추모시설 건립을 막아버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윤여관 이사님이 그러한 논리의 핵심에 서 있는 분인데... 사실 윤이사님처럼 생각하시는 것을 일반화하는 것은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콘크리트 뭐 이런 걸로 무슨 기념시설물을 건립하려면 차라리 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데 이점은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제가 거의 매년 서너 번씩은 답사를 오는데, 예전에 다 쓰러져가는 봉화대를 보면서 답사에 참여한 분들 중 열이면 여덟 아홉이 허물어져 가는 봉화대를 왜 보수도 하지 않고 저렇게 방치해두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웃음) 윤이사님의 생각대로라면 자칫 기념사업을 왜 하느냐? 이렇게 귀결될 수 있거든요. 윤이사님의 그런 생각이 우금티기념사업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혹여 생각해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윤여관

유홍준, 김정현, 정기용 그런 분들 미술이나 건축을 전공한 분들은 대체로 전 세계 근대가 훑고 지나간 흔적들, 예를 들면 피라미드, 에펠탑, 각종 신전(神殿)들 등 몇 천 년이 지나도 그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자연풍파에 온전히 견뎌내는 이런 것들이 농업사회에서는 신적인 존재로 자리하니까 그런 것들 말고, 문화라는 게 어쨌든 토착성도 중요하고 풍토성, 지역성이 중요하잖아요? 세계화로 인하여 물밀듯이 들어오는 외래문화를 무분별하게 마구 수용하는 것은 일종의 문화식민지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토착적인 정서에 부합하면서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하는 원칙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연은 우리 대에만, 특정 시대 사람들의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문병학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몸담은 동료로서 제가 윤이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대 현실에서 요구되는 일에 나름대로 부응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공주우금티기념사업회 운영방향에 예술가 윤여관의 생각을 지나치게 강하게 내세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당대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역사적 의무도 있는 거잖아요? 당대의 모든 사람의 의식이 어느 날 한시에 완벽하게 전화되는 그런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여러 생각이 공존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제가 말



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당대에 선구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더라도, 그 분의 생각이 정말 온당하게 선구적인 생각인지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공감의 이루어진 후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흐름이 형성되어 가야지 그렇지 않다면 한 개인의 생각을 일반화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술가가 추구하는 이상세계와 현실과의 충돌은 사실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당대에 부합한 기념시설물 설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나아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근대라는 게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다는 것이야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중요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근대의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근대극복 방안은 어려우니까 근대를 극복하는 것에도 보다 긴 전망을 내다보고 전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원하

우리 윤이사님과 문부장님 사이에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부장님이 제기한 문제점을 사실은 우리 공주우금티기념사업회에서 오래 전부터 윤이사님에게 얘기해왔고,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당대에 지금의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생각으로는 기념사업을 추진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 공주에서 기념사업 하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공주사업회에서 문부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임원님들과 대화를 나눌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임원님들도 문부장님과 대체로 생각이 같거든요.(웃음)

박남식

공주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언제까지 우금티전적지를 저렇게 방치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상당히 오래전부터였습니다. 공주시에서 우금티전적지 환경정비를 위해 신경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공주시장님도 중장기적으로 우금티전적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작년에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지원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념사업을 선참에 나서서 추진해야 할 기념사업회가 환경정비사업 자체를 보이콧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부장님의 생각에 저도 공감합니다.

문병학

요즘은 잘 사용되지 않는 말입니다만, 4반세기라는 말을 예전에는 많이 썼습니다. 100년이 한 세기니까 4반세기 25년이잖아요? 오늘 자리를 함께해주신 분들이 모두 25년 가깝거나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념사업 추진에 헌신해온 분들이라 본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얘기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대담에 응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25회 동학농민혁명 원평 구미란전투 희생자 124주기 추모제

지난 해 12월 21일 제25회 동학농민혁명 원평 구미란전투 희생자 추모제례가 전북 김제시 금산면 부근(원평집강소)에서 거행되었다. 새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주최로 식전공연, 청수봉정, 추모공연, 특별낭독 순으로 진행된 이날 추모제에는 동학농민혁명유족회를 비롯하여 기념사업단체 및 관계기관 관계자 등 내외귀빈 100여명이 참석하여 구미란 전투에서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 제25회 동학농민혁명 원평 구미란전투 희생자 124주기 추모제

전봉준장군 탄생 163주년 기념행사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진윤식)와 고창군(군수 유기상)은 지난 1월 10일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전봉준장군 탄생 16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최고지도자 전봉준 장군 탄생일을 기하여 그분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자 봉정 의식, 헌화, 기념식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유성엽 국회의원, 이승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이기곤 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등 700여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 전봉준장군 탄생 163주년 기념행사

동학농민혁명 제125주년 고부농민봉기 재현행사

갑오농민동학혁명유적보존회(이사장 박종신)는 지난 3월 15일 동학농민혁명 제125주년을 맞아 정읍시 이평면사무소 광장에 설치된 특설무대에서 동학농민혁명 고부농민봉기 재현행사를 가졌다. 동학농민혁명의 도화선이었던 고부농민봉기를 재현한 이날 행사에는 유진섭 정읍시장, 최낙삼 정읍시의회 의장, 이기곤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전해철 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장성열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많은 내외귀빈이 참석하여 동학농민혁명 고부농민봉기가 지닌 역사적 의미를 기렸다.

한편 이날 행사를 마련한 갑오농민동학혁명유적보존회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 추진에 기여한 이승우(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박종식(갑오농민동학혁명유적보존회 부이사장)에게 각각 감사패와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제125주년 고부농민봉기 재현행사(사진출처: 뉴스메이커)

정읍동학마라톤대회 개최

지난 2월 24일 정읍시체육회와 정읍시육상연맹 주최로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 정읍동학마라톤대회가 열렸다. 정읍종합경기장에서 내장산, 다시 종합경기장으로 이어지는 풀코스, 23km, 10km, 5km 등 다양한 종목으로 진행되었다.

5천여 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룬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인 정읍에서 펼쳐져 갑오선열들의 애국애족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 정읍동학마라톤대회

기념관 방문단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혁명의 전개과정과 그 역사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관과 교육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94년 5월 11일 동학농민군이 뛰어난 전략과 전술로 전라감영군을 크게 물리친 황토현전적(국가사적 295호)지에 자리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 기간 동안 전국 각 지역에서 많은 단체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주요 방문단체는 광주 성주회(36명), 전주 다운지역아동센터(38명), 홍익문화재단(7명), 꼬기또공부방(30명), 논산·계룡 초등학교 교장연수단(35명), 장성문화원(13명), 서울 여성회(15명), 광주 책을읽어주는아이들(40명), 전북지방경찰청(25명), 나주 농식품공무원 교육원(22명) 등 이다.



1	2
3	4

- ① 광주 성주회(36명)
③ 홍익문화재단(7명)

- ② 전주 다운지역아동센터(38명)
④ 꼬기또공부방(30명)

기념관 방문단체



5	6
7	8
9	10

- ⑤ 논산·계룡초등학교 교장연수단(35명)
- ⑦ 서울 여성회(15명)
- ⑨ 전북지방경찰청 (25명)

- ⑥ 장성문화원(13명)
- ⑧ 광주 책을읽어주는아이들(40명)
- ⑩ 나주 농식품공무원 교육원(22명)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월일(요일)	언론사명	기 사 제 목
1월 2일	KBS NEWS	전남 서남권, '동학 농민운동' 재조명 활동 활발
1월 2일	전북일보	동학학회·전주시, 동학혁명 125주년 기념 춘계학술대회
1월 3일	울산저널	동학농민군의 전주 입성
1월 3일	뉴스웨이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선정 기여 단체·개인 표창
1월 4일	경향신문	다·만·세 100년, “동학농민전쟁 당침”...남북 역사인식 차이 5%
1월 4일	새전북신문	남원 동학과 보국안민의 맥
1월 4일	한국일보	‘녹두꽃’ 조정석X한예리X윤시윤, 3인 주연 캐스팅 확정...믿고 보는 최강조합 완성 ‘기대’
1월 7일	남도일보	장흥부사 박헌양(朴憲陽)의 장렬한 죽음과 영회당 (永懷堂)
1월 11일	문화뉴스	동학농민운동 최고 지도자 ‘녹두장군’ 전봉준, 업적-역사 재조명 움직임 ‘확산’
1월 11일	전북중앙신문	녹두장군 새 역사의 꿈 이어가야
1월 14일	전북일보	정읍 동학마라톤대회 25일까지 참가자 접수
1월 14일	네이버뉴스	민성욱, ‘녹두꽃’ 출연 확정... 조정석과 호흡
1월 15일	이데일리	박혁권, 악명 높은 전라도 만석꾼 ‘갑질’ 연기한다
1월 18일	시사매거진	정읍시,‘동학농민혁명의 성지’ 덕천면에서 열린 2019년 연민과의 대화
1월 28일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혁명 선양사업 특정지역 집중 안된다”
1월 28일	전민일보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 연관성 널리 알려야
1월 31일	울산저널	교정청을 통해 동학농민군의 폐정 개혁을 시행
2월 7일	NAVER뉴스	유진섭 정읍시장 “동학혁명 기록물 세계유산 등록 추진”
2월 11일	NEWSis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125주년 고부봉기 재현행사 15일 개최
2월 13일	헤럴드경제	녹두꽃 ‘최무성’ 동학농민혁명의 영웅 ‘전봉준’으로 컴백
2월 14일	중부일보	[김준혁의 역사와 오늘] 동학농민혁명과 5·18광주민주항쟁
2월 14일	울산저널	땅 위에 만들어진 천국(天國), 동학혁명 시기
2월 14일	전북도민일보	고창군 ‘동학인문 스터디그룹 녹두교실’운영
2월 18일	중부일보	영화 ‘1894’ 제작 나선 김민준 감독 “동학농민운동, 한국 넘어 세계 알리는 것이 목표”
2월 18일	로이슈	[역사 속 오늘] 동학농민운동 고부봉기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월일(요일)	언론사명	기 사 제 목
2월 19일	뉴스핍	문체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국가기념일 지정…5월11일 기념식”
2월 21일	광주일보	정읍동학마라톤대회 24일 개최
2월 25일	전북일보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 정읍동학마라톤대회 성료
2월 26일	전북중앙신문	동학농민혁명 대규모 선양사업 발굴 절실
2월 26일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조망 ‘만석보 쉼터’ 만든다
2월 28일	전라일보	“동학혁명-3·1운동 있었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탄생”
3월 4일	한겨레	“민족대표 33인 중 9명의 동학농민혁명 참가자를 아시나요?”
3월 5일	전라일보	“동학 근간 3·1운동 정신 계승” 전북 관련 기념행사 연중 추진
3월 6일	NEWS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9년 학술 연구논문 공모
3월 7일	울산저널	항일을 위한 총기포와 동학군 진압에 앞장선 일본
3월 8일	충청투데이	살기 어려웠던 그 시절…동학은 희망이었다
3월 11일	OhmyNews	33인 중 최고령자, 일제에 온몸으로 맞선 동학교도
3월 12일	전북일보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UCC 공모전
3월 12일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 제125주년 고부봉기 재현행사 15일 개최
3월 14일	울산저널	공주를 향하여 동학농민군 총진군
3월 14일	강원도민일보	홍천서 농학농민혁명군 은거한 교당·숙영지 터 발견
3월 15일	충청투데이	겨울바람 사이로 동학군의 비명이 가득했다
3월 18일	뉴스메이커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제125주년 고부봉기 재현행사 ‘성료’
3월 18일	NEWS1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소재 드라마 ‘녹두꽃’ 제작 지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등록 신청안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는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 등록 신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유족분들이 빠짐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이웃 등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 대상자**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고손자녀
- **등록신청 서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서
 - 첨부서류
 - 유족명단(동일한 참여자에 여러 명의 유족이 있는 경우)
 - 신청인의 부모·조부모·증조부모 또는 고조부모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문헌 1부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호적과 관련된 서류 1부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그 밖에 유족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 **제출방법**
 - 2018년 9월 5일부터 심의위원회 사무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사무처 주소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사무처
- **문의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사무처☎ 063-538-2897)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 참고